

경로당 고유가 '속얇이'

광주지역 노인들 몰려 난방비·점심 부담 운영난

광주지역 경로당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하루 치솟는 기름값에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노인들이 기름값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집의 보일러를 끄고 경로당으로 몰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 시내 각 자치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광주지역 경로당 수는 모두 1천103개소.

지자체별로는 ▲동구 91개소 ▲서구 192개소 ▲남구 176개소 ▲북구 339개소 ▲광산구 305개소 등이다. 이들 경로당은 연간 50만원의 난방비와 매월 11만~26만원의 운영비를 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실내난방유 200ℓ 한 드림당 가격이 최근 19만~19만8천원까지 오르면서 난방비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날씨가 차가워지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 난방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20여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경로당은 시간제로 난방을 하거나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 1개만을 사용하는 등 '교육지책'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의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가격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찾는 이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난방시설이 잘 된 경로당에서 노래방, 발마사지 등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남구 월산경로당 김부자(63) 총무는 "최근 경로당에 오면 기름값도 절약되고 점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노인들이 종종 서방경로당도 회원 수 50명 중 30명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비좁은 방에 많은 수의 노인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회원

들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말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경로당은 회원 수가 너무 많아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각자 100~500원씩 걸어 부족한 쌀과 반찬을 구입해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북구 두암동 부영경로당 이모(72)씨는 "집에 있는 것보다 경로당에 모여 있는 게 낫지도 안 보이고 기름값도 절약돼 좋다"며 "집에 가더라도 맨발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의 화로를 꺼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 월산경로당 김부자(63) 총무는 "최근 경로당에 오면 기름값도 절약되고 점심도 해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노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경로당 측에서는 기름값과 점심 끼니 걱정하느라 속앎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입춘방 써 드립니다" 입춘(立春)을 하루 앞둔 3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입춘방 써주기' 행사에서 지림 이점숙, 신암 박용주, 창강 정채호 등 3명의 서예가가 시민들에게 하운과 '입춘대길' 문구를 써주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추위로 설레는 입춘 2월 4일

(음 12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3~5℃
주요 도시	구름 많음	-1~5℃
안남도	구름 조금	-2~5℃
울릉도	구름 조금	-1~5℃
독도	구름 조금	-5~5℃
제주	구름 조금	-2~5℃
충청도	구름 조금	-3~6℃
경상도	구름 조금	-4~5℃
강원도	구름 조금	-5~6℃
충남도	구름 조금	-4~5℃
충북도	구름 조금	-5~6℃
충청북도	구름 조금	-4~5℃
충청남도	구름 조금	-4~3℃
충청남도	구름 많음	0~5℃
충청남도	구름 많음	-6~4℃
충청남도	구름 조금	-7~4℃
충청남도	구름 많음	1~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12:51 썰물 < 05:25
여수 밀물 < 08:06 썰물 < 01:09

▲해돋이 07:30 ▲해질 18:03 ▲달돋이 05:30 ▲달질 14:59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최저/최고	-4/5	-2/4	-2/3	-2/3	-3/5	-3/6

설 연휴 흐리고 눈 온다

8일 이후 맑아져

올 설 연휴는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는 등 짜릿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전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다가 설날인 7일 곳에 따라 눈이 온 후 개겠다"며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8일 이후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설 연휴 날씨

도 전국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남부 만만바다와 남해서부 만만바다는 6일 1~3m, 7일엔 2~3m 등 파도가 비교적 높게 일겠으나, 해상을 이용한 귀성길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인 4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았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0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 이르는 등 평년과 비슷하겠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굵는 학생 한명도 없도록...

광주 이달말 결식학생 후원 재단 출범

'굵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도시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광주시청 등 관계기관들과 기금을 마련, 공익법인 '빛고를 결식학생 후원재단'(가칭·이하 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은 매년 총 25억원의 기금을 조성, 2억5천만원의 법인 기금으로 두고 22억5천만원으로 연 5천여명의 결식학생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각각 10억원씩,

승원문화재단이 2억원 등을 출연한다. 10년간 모이게 될 기본재산 25억원의 항구적인 결식학생 지원사업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은 광주 시내 5천여명의 학생들이 국민기초수급가정,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중식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저소득층 자녀 2만7천407명 중 시교육청이 중식을 지원한 학생은 2만3천

212명(100억3천여만원)으로 약 4천100여명이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거나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4천100여명에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연간 5천명 가량의 학생이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4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박광태 광주시장, 고재철 승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 제로화 사업 지원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재단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 해소는 물론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광, 저어새 최남단 번식지 확인

서해 무인도서 멸종위기 동물 5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영광군과 충남 보령시, 전북 군산 지역의 57개 무인도에서 자연환경조사 사업을 지원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사업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는 검은머리물떼새가 18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영광군 무인도에서 발견한 저어새 무리. 영광에서 저어새가 발견됨에 따라 이곳이 저어새의 한국 최남단 번식지임이 확인됐다.

장성 눈썰매장 잇단 사고 '주의'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던 이용객들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하고 있다.

3일 오후 1시50분 장성군 삼계면 D 눈썰매장에서 백모(41·전북 고창군)씨가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백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에도 이 눈썰매장에서 이모(34·광주시 광안구)씨가 썰매에서 떨어져 나가 엉덩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

난탈 13일에도 같은 곳에서 김모(여·31·전북 정읍시)씨가 썰매를 타다 넘어져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장성소방서 관계자는 "어른 뿐만 아니라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어린이들도 울풍불통한 노면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름 방제작업 중 순진

손명식씨 영결식 염수

국립공원인 태안 해안에서 기름방제작업 도중 순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 직원 손명식(44·구례군·사친)씨의 영결식이 3일 오전 구례군 구례병원에서 열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국립공원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박광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고인의 노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고인의 유해는 이날 구례군 세심사 하늘공원 추모관에 안장됐다.

구례 출신인 고인은 지난 1일 태안을 찾아 네 번째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던 중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업시간 / 대 / 장소

· 월요일 저녁 7시~9시 (6~8학년) - 교육센터 1층

· 수요일 저녁 7시~9시 (9~12학년) - 교육센터 1층

· 금요일 저녁 7시~9시 (초·중·고) - 교육센터 1층

교육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남산동1가 44-1 (062)434-7857

· 각편 행사(방문회, 교회행사 등)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

2008년 전액 국비 교육생 모집

구분	학종	학점	학비	장학금	주요내용
대상	2007.1.1~2008.2.28까지 생원생(고졸) 등	2007.1.1~2008.2.28까지 생원생(고졸) 등	2007.1.1~2008.2.28까지 생원생(고졸) 등	2007.1.1~2008.2.28까지 생원생(고졸) 등	2007.1.1~2008.2.28까지 생원생(고졸) 등

세상직업전문학교 ☎ (062)525-9933, 526-9875